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킵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며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민 다수가 느끼는 공유 전동킵보드로 인한  
안전 위협과 강력한 규제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가 진행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시민의 76%가 전동킵보드 운영 전면 금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시민 대다수가 무면허, 음주운전, 보행자 위협 등  
전동킵보드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무면허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를 쉽게 대여할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전동킥보드가 무면허로 보도를 질주하며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언제 통과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를 통해 우선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제 시민들은 “전동킥보드 퇴출”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차세대 교통수단인 전동킥보드가 시민에게 완전히 외면받지 않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해주시길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